



보성군,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보성군은 올해 직불제 사업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농신불출장 관리원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4월 20일까지이며, 논이모작은 3월 9일 까지 신청 받는다.

사업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각 사업별로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다.

제외대상자로는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쌀·밭·조건 불리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등…논이모작 내달 9일

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 1,000㎡ 미만인 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등이다.

쌀 직불금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은 ha당 107만원, 비진흥지역은 ha당 8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밭 직불금은 진흥지역은 ha당 63만원, 비진흥지역은 ha당 47만원이

고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는 ha당 80만원, 조지는 ha당 35만원이 지급 돼 밭 조건불리 직불금의 경우 전년 대비 ha당 평균 5만원이 인상됐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2022년까지 지원단기를 매년 ha당 5만원을 인상해 70만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며, 올해는 직불금의 20%를 의무적으로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했던

제도가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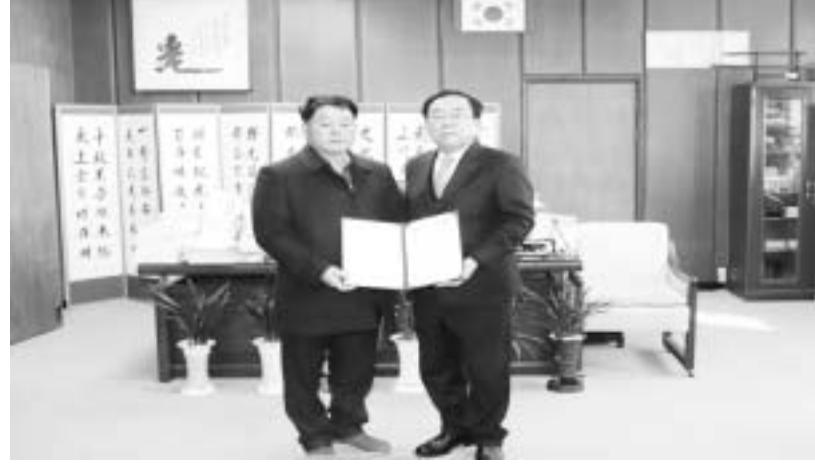
군은 지난해 3개 분야 직불제 사업 15,155㏊, 14,079농가에 123억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원단기가 확정됨에 따라 7,820㏊, 5,737농가에 61억원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농가는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참조기 해상가두리 양식으로 굴비산업 활로 개척

영광군, 신안우럭양식협회와 계약양식 협약 통해 대량생산



영광군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자원감소에 따른 참조기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굴비산

업 활로 개척을 위해 굴비단계 대표 및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

조기 해상가두리 계약 양식 협약을 신안우럭양식협회와 체결했다

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광군 굴비업체에서는 굴비 원료인 참조기를 인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안우럭양식협회는 기존 양식 품종인 우럭보다 성장이 빠른 참조기 양식을 통해 고부기기자 양식대체 품목을 발굴하게 되었다.

참조기 해상가두리 계약 양식을 위해 영광군에서는 참조기 종자 80여만마리를 신안우럭양식협회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신안우럭양식협회에서는 참조기를 5~6개월 양식한 후 전량을 영광군수협 위원장에 출하하게 된다.

그동안 영광군에서는 참조기 원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참조기 종자 53만마리를 암마도 등 해상에 방류하였고, 지난해에는 참조기 해상가두리 시범양식을 추진하여 5개월만에 자연산 80% 가격 수준으로 출하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참조기가 조피볼락(우럭)보다 4배이상 성장이 빠르고, 사료는 25%정도만 소요되며, 신안우럭양식협회는 기존 양식 품종인 우럭보다 성장이 빠른 참조기 양식을 통해 고부기기자 양식대체 품목을 발굴하게 되었다.

영광군은 양식여건이 타지역보다 좋지 않아 해상가두리 양식장이나 참조기 육상양식장이 없으나, 올해 양식이 가능한 지선에 해상 가두리양식 면허와 유후수면을 활용한 양식장을 개발하고, 축제식 참조기 시범양식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조기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고흥군,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적 업무자 63명, 100% 무기계약직 전환

고흥군은 1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간제근로자 63명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임용장을 수여했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및 추진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였다.

지난 하반기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정규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간제근로자 97명 중 고령자·한시적 업무 등을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자 63명 전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 것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 체계

가 호봉제로 전환되며 특히 기간제근무 당시 경력이 인정되어 임금 상승의 혜택과 장년 보장(60세), 복지 등의 처우가 개선된다.

박병종 군수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역량을 키워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신안군,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



신안군은 1일 군청 공연장에서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김종재 전문위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행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충민원 처리 사례와 조정기법’이라는 주제로 실시되었다.

교육은 △행정 서비스마인드 △사고의 유연성 △소통의 유연성 향

상이라는 내용을 실제 민원처리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민원처리의 교훈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 교육참석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고충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민원처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과의 입장차로 발생되는 2차민원을 최소화하여 질 높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고충민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상황별 메뉴얼 △민원답변서 예시문을 전 직원에게 배포하여 민원처리 민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함평군, 결혼이민자 위한 한국어교육 개강

초·중급 과정 교육 매주 화·수·목요일 진행

함평군 전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기영)

원센터는 지난 1일, 결혼이민자와 한국문화 이해와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교육 과정을 개강하였다.

군은 결혼이민자들의 인정적인 한국 사회정착을 위해 한국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적취득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비할 수 있도록 초·중급 과정의 교육을 매주 화·수·목요일에 진행한다.

이달 24일부터는 징집에 근무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주말반을 4월에는 외국인근로자반을 개강하여 한국어 습득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계획이다.

레티(베트남, 28)씨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한국어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며 “자라는 아이를 위해서 올해는 국적을 꼭 취득하고 싶다”라고 학습의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함평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269명 중 129명(47.9%)이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밀거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장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오는 12일부터 접수…최대 770만원 지급

장성군이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 차량을 줄이기 위한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올해 2005년 이전에 제작한 경유차량과 도로용 건설 기계를 폐차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770만원을 지급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과 디프트럭, 콘크리트미서트러, 콘크리트트랙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으로, 장성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 중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되어야 하고, 자동차 상태가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차량기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최고 770만원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된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한도액 범위내에서 10%를 기산 지급한다.

노후 경유차가 감소하면 대기 오염 물질과 유해 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문의와 신청이 많아 조기 소진되었다.”며

“현재 약 100대 분량의 사업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차주는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114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차주에게 1억4천3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장성=반정모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7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기(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약사항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경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청탁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민사권리방안 안내